

S-Oil,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

S-Oil(대표 나세르 알 마하셔)과 울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28일 울산농업기술센터에서 6년째를 맞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.

S-Oil 박봉수 수석부사장 등 임직원, 여성단체협의회 회원, 박맹우 울산시장, 서동욱 시의회 의장, 김복만 교육감 등 250여명은 배추 5000포기와 무 1000여개로 김치를 담갔다.

김치는 울산시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과 한 부모 가정 등 1100여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.

S-Oil은 지역 농민의 쌀 사주기, 무공해 농업 지원, 불우이웃에 쌀 지원, 예술단체 지원, 울산박물관 운영 지원, 동절기 연탄 배달, 난방유 지원, 태화루 복원사업 지원 등 활발하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.

박봉수 S-Oil 수석부사장은 “어려운 이웃들이 김장김치로 행복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2/11/28>